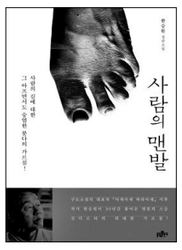
부처님은 사회적 부조리에 맞선 혁신가



사람의 맨발
한승원 글
불광 펴냄
1만 3800원

"싯다르타 태자는 왜 출가를 했을까가 제일 큰 의문이었습니다. 출가 이유가 사문유관상에 나타나 있지만 이는 신화적 묘사이지요. 그래서 사실적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의미를 소설 속에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작가 한승원씨가 붓다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소설 〈사람의 맨발〉을 출간했다. 한승원 작가는 1966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목선〉으로 데뷔한 후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한 작가이다. 1996년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내려와 집필실 '해산토굴(海山土窟)' 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해산(海山)은 작가 한승원의 호(號)이고, 토굴(土窟)은 집을 낮추는 의미로 그 속에 들어가 창작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에게 소설은 그의 존재 자체라고 말한다.

"이 곳에서 초의, 정약용, 추사 등 주로 역사 인물 소설을 썼습니다. 모 출판사의 부탁으로 원효 스님도 썼습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소설의 마지막 주인공은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이었습니다. 이번 책은 5년동안 집필했는데, 불교사상에 젖어 살아온 모든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작가 한승원이 1985년에 발표해 구도소설의 대표작이 된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베스트셀러가 됐을 뿐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져 크게 주목받았다. 그 뒤 작가에게는 영혼의 스승인 석가모니 붓다의 삶을 소설로 써보고 싶은 오랜 염원이 있었다.

이번 책이 바로 그 결실이다. 〈사람의 맨발〉은 한마디로 인류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한 인간인 싯다르타를 생생히 그려냈다. 특히 싯다르타가 젊은 시절에 왜 출가 했는가, 그 의미를 소설로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작가는 술회한다. 작가는 싯다르타를 신격화된 절대적 존재라기보다 모든 인간이 고통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실존적 고뇌를 거듭한 한 인간으로 생동감 있게 형상화했다.

작가는 여행 중에 와불(臥佛)의 맨발을 볼 때마다 붓다의 '맨발' 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곤 했다고 말한다. 길 위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온 세상의 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며 사람의 길에 대해 가르치다가 길 위에서 열반한 싯다르타의 맨발이란 무엇인가? 그에게 싯다르타의 맨발은 슬프면서도 장엄한 출가 정신의 표상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싯다르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래서 작가는 싯다르타의 성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출가에 초점을 맞춰 이 책을 썼다. 출가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출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은 계급사회이며, 자본주의 계급사회 속에서 출가하는 마음, 즉 출가 정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싯다르타의 출가 정신은 구도적 목적 보다는 거의 혁신에 가깝다. "고대 인도에서 계급은 이미 날때부터 정해진 신의 뜻으로 여겨 계급 차별을

부처님 출가과정에 초점 맞춰
출가 목적은 "계급 차별 철폐"
'맨발' 은 장엄한 출가 정신 표상

정당화했는데, 싯다르타는 이 생각에 맞선 것이지요. 그는 계급사회를 철폐하겠다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출가한 것이지요."

저자가 전체 320페이지인 이 소설서 절반이 넘는 200여 페이지를 싯다르타의 출가 전 이야기로 할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싯다르타는 기원전 5세기경 마가다국의 변방 카필라 성의 태자로 태어난다. 당시 인도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처럼 강력한 전제 군주의 도시국가가 지배했다. 약소국인 카필라 성의 태자인 싯다르타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의 국력 증강보다는 신분차별의 벽을 철폐하는데 집중한다. 싯다르타는 불가촉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장인인 재정대신 다리나의 벽에 부딪혀 궁궐서 연금까지 당한다.

그렇다면 출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싯다르타의 출가 동기는 '사문유관(四門遊觀)' 이라는 일화 속에 담겨 전해진다. '사문유관' 이란 싯다르타가 카필라 성의 동서남북 네 성문으로 나가서 동문에서는 늙은이를 보고, 남문에서는 병든 이를,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북문에서는 슈라마나 수행자를 보고 드디어 출가할 뜻을 품었다는 계기를 말해주는 설화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싯다르타의 출가 동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계급사회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과 탐욕으로 인해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싯다르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다. 우주 자연 속에서 불안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자라고 의미를 부여한 신에게 매달린다. 악을 저질러 놓고 신에게 핑계를 댄다. 모든 것을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싯다르타는 그 고독한 인간을 구제하려고 신을 거부하고 출가하게 된다. 싯다르타가 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란 '내가 지상에서 최고의 존재로서 우뚝 서 있다' 는 오만의 의미가 아니다. 인간인 '나는 오직 내 운명의 짐을 혼자서 지고 가야 하는 절대 고독자' 라는 뜻이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싯다르타가 출가 전에 방안의 커튼, 책, 촛대와 같은 물건과 마부인 찬타카, 늙은 말 칸타카와 작별하는 모습이다. 저자는 최근 들어 이별을 연습하는 중이라고 고백한다.

저자는 "76년을 살다보니 그동안 지나쳐 버린 들꽃 한 송이 조차 아쉽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싯다르타가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소설을 쓴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처님 회상하고 찬탄하는 것 … 환희심 일으켜 깨달음 길 안내

부처님, 나의 부처님

마트리체타 지음 | 허만항 번역
운주사 펴냄 | 1만원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문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붓다의 인품을 회상하고 붓다를 찬탄해 노래한 찬불송의 원류로,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우리말, 영어본을 서로 대조하며 볼 수 있게 엮었다.

붓다가 입멸한 후 사람들은 붓다의 삶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위한 노력 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의 인품과 태도,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모습에 감화를 받았다. 붓다의 인품을 회상하고 그를 찬탄해 노래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환희심으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깨달음의 길을 걷게 하는 데 큰 힘을 주었다.

이 책의 저자인 시인 마트리체타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서기 1세기경 인도에서 태어났으며, 아리야데와(聖天)에 의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다. 그의 저술은 아름다운 문장으로 인해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시 중의 하나로 평가되었다. 서기 7세기경 인도 전역을 여행한 중국인 순례자 의정은 이 찬불송이 그 아름다움이 천상의 꽃과 같고, 이 시에 담긴 높은 도의는 그 위엄이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에 견줄 만하다고 평했다.

인도에서 찬가를 지은 이들은 모두 그를 문학의 아버지라 여기고 그의 문체를 모방하였다. 심지어 아상가와 바수반두도 그를 위대한 불교 시인으로 칭찬하였다. 인도에서 수행승이 된 이들은 모두 오계와 십계를 암송할 수 있게 된 후 바로 마트리체타가 지은 이 찬불송을 배웠다. 이 책은 이처럼 찬불송의 원류가 되는 〈일백오십찬불송〉을 산스크리트와 한문, 영문과 한글 번역을 대조하여 번역한 것이다.

모두 153개의 노래로 된 이 찬불송은 서문격인 기도문을 포함해 모두 13장으로 나누어 붓다의 지혜와 공덕, 자비를 찬탄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인도문학의 박티 또는 헌신의 장르에 속하지만, 그와 같은 작품서 흔히 보이는 특징인 현란한 문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평하고 있다. 확실히 산스크리트 원본의 찬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두 언어와 의미 양면에서 빼어난 아름다움을 인정한다. 인도에서는 이 찬가에 대한 수많은 주석서들이 집필되었고, 당연히 학파를 불문하고 불교의 모든 학파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 불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붓다를 향한 깊은 헌신과 그의 덕성에 대한 찬탄의 표현인 마트리체타의 찬불송은 다음 세 가지 목적과 이익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준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준다는 점이다. 붓다의 덕성은 그 자체만으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덕성이 마트리체타의 시와 같이 그렇게 충만히,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될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도록 채찍질한다는 점이다. 마트리체타는 붓다의 온화함, 관대함, 인내심, 그리고 그의 다른 덕성을 깊이 찬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붓다를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명상을 돕는 좋은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붓다 누사띠(佛隨念) 수행이나 붓다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 수행에 있어 찬불송에서 발췌한 것을 읽거나, 또는 때로는 그것을 대체하여 사용하면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총 153개 노래로 부처님 찬탄
언어는 물론 의미까지 아름다워

이 책의 체제와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영역자의 서문을 달아 이 찬불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의의를 소개함으로써 찬불송을 실제적인 기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본문에서는 마트리체타가 쓴 범어 원문을 각 송의 첫머리에 명시하고, 아래에 의정의 한역본을 달아 우리말로 번역했다. 한문에는 한글 음을 달아 읽기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 영역본을 직역에 가깝게 따로 우리말로 번역해 한문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록으로 산티데바의 〈대승집보살학론〉 가운데서 〈일백오십찬불송〉과 내용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했다.

마트리체타 존자의 〈일백오십찬불송〉 전체에 큰 물줄기로 흐르는 주제는 곧 붓다의 공덕신을 찬탄하는 것인데, 이는 붓다의 공덕신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염불 수행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따라서 〈일백오십찬불송〉의 이 같은 정신이 어떻게 후대에 계승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산티데바 존자가 저술한 〈대승집보살학론〉에서 부처님의 공덕신을 찬탄하는 게송을 소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현대 학자의 주석을 인용함으로써 간략한 주석 역할을 하게 했다.

김주일 기자

아잔차 스님의 감로 법문 엮어

아잔차의 담마토크

폴 브라이터 지음 | 이명원 옮김
한언 펴냄 | 9800원

"차 스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원에서의 수행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만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항상 변화했습니다. 때때로 스님은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예로 들어, 그때마다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타이의 유명한 스님, 아잔 차(1919~1992). 이 책에서는 차 스님으로 표현했다. 이 책은 바로 차 스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엮었다. 아잔 차 스님은 태국의 존경받는 불교 지도자로 수많은 서양인들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아잔 차는 장황하고 어려운 설교가 아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담백하고도 소박하게 인생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특유의 잔잔하고 유머러스한 화법으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명상 등을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평이한 수행법들도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인류가 걸어온 '영성의 스펙트럼' 은?

깨달음의 스펙트럼2

김현철 지음 | 시단 펴냄 | 2만원

이 책은 그러한 지혜들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을 읽다보면,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느새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종교이든, 철학이든, 수행과 명상이든 상관없다. 열린 자세로 읽다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안목을 통해 '나의 문제' 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 인류가 걸어온 길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궁극의 영성을 향해 인류가 걸어온 '영성의 스펙트럼' 이다.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들은 단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는 한 덩어리' 이라는 것이다. 즉 분리된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개체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발원한다.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다.

김주일 기자